

한-칠레 FTA 발효 2년 후
칠레시장에서의 우리제품 점유율 변화

2006. 3



<요 약>

- '04.4.1일부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최근 3개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불, %)

2003년	2004년	2005년
517 (13.9)	708 (37.0)	1,151 (62.5)

주 : ()은 전년대비 증감률

- 한국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90년대 후반부터 점차 감소하여 '99년 2.9%의 점유율을 기록하다 '00년에 다시 3%대로 진입
- '02년부터는 꾸준히 점유율이 증가하여 '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시장점유율 3%대 돌입
- FTA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즉시철폐 품목 중심으로 수출증가세 뚜렷
- 대칠레 수출 상위 5위 품목 : 자동차, 경유, 화학제품, 휴대폰, 철강
 - '04년 대비 수출 증가 품목 : 디지털카메라(280.5%), 경유(152.9%), VCR(60.4%), 폴리에스테르(64%), 자동차(63.2%), 휴대폰(38.5%) 등
 - '04년 대비 수출 감소 품목 : 철강(-8%), 전자레인지(-35%)
- 한-칠레 FTA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 석유화학, 폴리에스테르 등의 對칠레 수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자동차의 경우, FTA 발효이후 매년 전체 수출이 50%이상 증가하여 현지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히 금년 2월 신차 판매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고 1위로 등극하는 등 FTA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음.
 - 자동차 수출증가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동반 수출증가 효과 기대

-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 고급가전이 빠르게 현지 수입시장 점유율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반면, 전자레인지 등 중저가 제품은 중국의 강세로 수출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 시장개방 예외품목인 일부 가전의 점유율도 증가하고 있어 FTA에 따른 영향을 함께 받는 것으로 분석
- 향후 FTA 시장개방 스케줄에 따라 타이어,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 점진적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면 FTA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칠레 시장에서는 FTA 체결국이 강세

- '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칠레의 수입대상국 중 8위
 - 수입국 상위 10개국 중 칠레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는 일본뿐.
- 중국이 '06.7월 칠레와 FTA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일본 역시 FTA 협상 중

□ 중-칠레 FTA 발효 대비 필요

- 중-칠레 FTA 발효 시 중국 시장보다는 칠레 시장에서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날 전망
 - 자동차, 전자제품, 컴퓨터 등은 저원가를 앞세운 중국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기업은 중국 내 생산기지에서 칠레로 직접 특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유리
- 중남미의 주요 시장인 칠레에서 경쟁이 더욱 격화됨에 따라 FTA 발효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차별화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노력 필요

<목 차>

I. 국별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1
II. 우리나라의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별 수입시장 점유율	5
1.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 추이	5
2. 주요 수출품목별 시장점유율 변화	6
III. 칠레시장에서 우리기업이 느끼는 변화	20
1. 자동차	20
2. 가전	23
3. 자동차부품	24
4. 건설중장비	25
IV. 시사점	27

I. 국별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 칠레의 주요 수입국 중에서 '05년 시장점유율은 아르헨티나(16.1%), 미국(15.8%), 브라질(12.7%)이 상위 1~3위를 점하며, 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45%를 차지함

○ 10대 수입국 중 '04년 대비 증감률은 앙골라(177.9%), 페루(59.4%), 한국(54.5%)이 높음.

- 단, 앙골라는 수입품이 원유(HS2709)밖에 없음.

○ FTA 미발효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05년 8.5%로 한국(3.6%)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04년 대비 증가율은 37.5%로 한국보다 떨어짐.

- 한편, FTA 미체결국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05년 3.4%로 한국이 교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

- '05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은 54.5% 증가한 반면, 중국은 37.5% 증가하여 증가율에서는 우리나라가 높지만, 총 수출규모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두 배를 넘음.

- '06년 7월 중-칠레 FTA가 발효되면 중국의 對칠레 수출규모와 증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04.4.1일 한-칠레 FTA 발효 이후 '04년 대칠레 수출이 전년대비 37.7% 증가하였고, '05년에도 전년 대비 54.5% 증가하며 10억7천만불을 기록

- 시장점유율은 '03년 2.98% → '04년 3.12% → '05년 3.6%로 꾸준히 증가하여 중국(4위), 페루(7위) 등에 이어 시장점유율 8위

□ 주요국별 칠레 수입시장 점유 추세

- '05년에는 아르헨티나, 미국, 브라질이 칠레 시장점유율 상위 기록
 - '00년 시장점유율 1위였던 미국은 점차 점유율이 하락세에 있다가 '03년부터 소폭 상승 중 ('04.1월 미-칠레 FTA 발효)
 - 브라질은 '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는 '03년 이후로 점유율 급감
- 캐나다와 멕시코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우리나라는 FTA체결 이후 상승세로 전환
 - 멕시코와 캐나다도 FTA 체결국이나 각각 '99년, '97년 발효된 이후 칠레가 EU, 미국 등과 FTA 체결한 이후 점유율 하락
- 한·중·일 중 우리나라의 '05년 점유율 상승폭이 가장 높음

<칠레의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백만불, %)

순 위	국 가	2003	2004	2005	
		금액(점유율)	금액(점유율)	금액(점유율)	증감 (05/04)
1	*아르헨티나	3,620 (21.3)	4,143 (18.6)	4,804 (16.1)	16.0
2	*미국	2,464 (14.5)	3,376 (15.1)	4,708 (15.8)	39.4
3	*브라질	2,008 (11.8)	2,778 (12.4)	3,772 (12.7)	35.8
4	*중국	1,245 (7.3)	1,846 (8.3)	2,539 (8.5)	37.5
5	앙골라	65 (0.4)	431 (1.9)	1,197 (4.0)	177.9
8	*한국	505 (2.98)	696 (3.1)	1,076 (3.6)	54.5
9	일본	612 (3.6)	797 (3.6)	1,017 (3.4)	27.6
10	*멕시코	488 (2.9)	618 (2.8)	762 (2.6)	23.1
14	핀란드	258 (1.5)	197 (0.9)	514 (1.7)	160.9
16	*캐나다	336 (1.98)	347 (1.6)	405 (1.4)	16.5
18	에콰도르	79 (0.5)	138 (0.6)	271 (0.9)	95.7
Total		11,683	15,371	21,065	62.3

주 : *는 FTA 체결국 (중국은 2006년 7월 발효예정)

자료 : WTA

□ 칠레는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매우 활발한 추세

- 칠레의 '05년도 FTA 체결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28억 9천 만불로서 전체 수입의 약 77%를 차지
- FTA체결국 중 MERCOSUR(아르헨티나 16.1%, 브라질 12.7% 등)로부터의 수입이 2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EU가 16.5%, 미국이 15.8%를 차지하여 상위를 기록
- 우리나라는 안데스공동체(6.4%) 등에 뒤를 이은 3.6%로 일본(3.4%)과 비슷한 수준

- FTA체결국 중 '04년 대비 수입증가율이 큰 곳은 EU 신규가입국 59.7%, 한국 54.5%, 안데스공동체 40.2% 순으로 조사됨

<칠레의 주요 FTA국으로부터의 수입>

(단위: 백만불, %)

순 위	국가 및 체제명	2003	2004	2005	증감률 (05/04)
1	MERCOSUR	5,753.3 (33.9)	7,092.4 (31.8)	8,794.7 (29.5)	24
2	EU(15)	3,190.2 (18.8)	3,516.1 (15.7)	4,913 (16.5)	39.7
4	미국	2,464.1 (14.5)	3,376.6 (15.1)	4,707.6 (15.8)	39.4
7	안데스공동체	868.5 (5.1)	1,352.8 (6.1)	1,896.3 (6.4)	40.2
11	한국	505.9 (3.0)	696.5 (3.1)	1,075.8 (3.6)	54.5
13	멕시코	488.8 (2.9)	618.7 (2.8)	761.5 (2.6)	23.1
19	캐나다	336.6 (2.0)	347.8 (1.6)	405.3 (1.4)	16.5
25	EFTA	129 (0.8)	171 (0.8)	202 (0.7)	18.1
40	EU 신규가입국	54.4 (0.3)	60.9 (0.3)	97.2 (0.3)	59.7
53	중미	20.5 (0.1)	47.6 (0.2)	37.1 (0.1)	-22.1
FTA체결 주요국 총수입		13,811.3	17,280.3	22,890.4	29.3

주 : ()안은 칠레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 WTA

Ⅱ. 우리나라의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별 수입시장 점유율

1.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 추이

- '04.4.1일부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최근 3개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불, %)

2003년	2004년	2005년
517 (13.9)	708 (37.0)	1,151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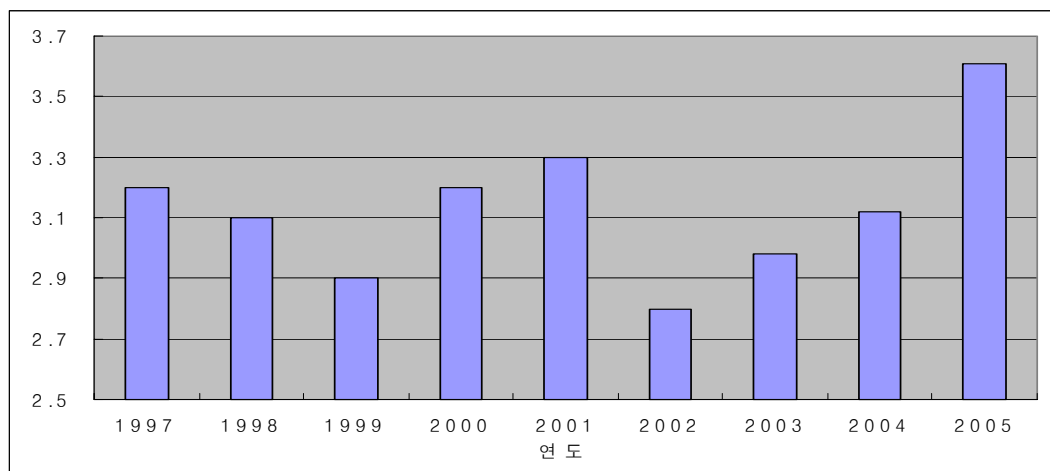
주 : ()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KOTIS

- 한국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90년대 후반부터 점차 감소하여 '99년 2.9%의 점유율을 기록하다 '00년에 다시 3%대로 진입
- '02년부터는 꾸준히 점유율이 증가하여 '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시장점유율 3%대 돌입

<우리나라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추이>

(단위 : %)



자료 : WTA

2. 주요 수출품목별 시장점유율 변화

□ FTA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휴대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즉시철폐 품목 중심으로 수출증가세 뚜렷

○ 대칠레 수출 상위 5위 품목 : 자동차, 경유, 화학제품, 휴대폰, 철강

○ '04년 대비 수출 증가 품목 : 디지털카메라(280.5%), 경유(152.9%), VCR(60.4%), 폴리에스테르(64%), 자동차(63.2%), 휴대폰(38.5%) 등

○ '04년 대비 수출 감소 품목 : 철강(-8%), 전자레인지(-35%)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별 對칠레 수출 추이>

(단위: 백만불)

품목	양허안	2003	2004	2005	증감 (05/04)
자동차	즉시철폐	148.9	243.0	381.1	56.9
경유	즉시철폐, 5년간관세인하	65.3	61.1	154.5	152.9
화학제품	즉시철폐, 5년간관세인하	43.6	54.3	104.2	92.2
휴대폰	즉시철폐	24.4	67.2	93.1	38.5
철강	5년간관세인하	21.9	34.1	31.4	-8.0
세탁기	예외	16.3	17.2	21.9	26.8
타이어	10년간관세인하, 5년유예후8년간관세인하	8.8	12.4	15.3	23.7
자동차부품	즉시철폐, 5년간 관세인하	8.8	9.9	13.0	31.1
칼라TV	즉시철폐	5.0	8.5	10.4	21.6
건설중장비	즉시철폐, 5년간관세인하	5.0	7.2	9.5	31.7
폴리에스테르	즉시철폐	2.2	5.6	9.3	64.0
냉장고	예외	4.3	4.7	7.8	65.3
VCR	즉시철폐	3.3	3.7	6.0	60.4
전자레인지	즉시철폐	1.9	1.6	1.1	-35.0
디지털카메라	즉시철폐	0.1	1.6	6.3	280.5
Total		362.9	535.5	859.1	32.8

자료 : WTA

□ 주요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도 지속 상승 추세

○ 점유율 증가 품목 :

- 디지털카메라(280.5%), 경유(152.9%), 화학제품(92.2%), 폴리에스테르(64%), 자동차(56.9%) 등

○ 한국산 점유율 상위인 품목 :

- 폴리에스테르(1위), 세탁기(1위), 전자렌지(2위), 화학제품(2위), 칼라TV(2위), 디지털카메라(2위), 휴대폰(3위), 자동차(3위), 경유(3위), VCR(3위)

○ 점유율 감소 품목 : 철강, 전자렌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별 칠레시장 점유율 변화>

(단위: %)

품목명	2003	2004	2005
자동차	11.9	13.9	14.09 (3위)
휴대폰	9.5	18.1	19.36 (3위)
경유	15.2	7.8	10.21 (3위)
철강	3.57	3.57	2.61 (12위)
타이어	5.2	6.2	6.06 (6위)
폴리에스테르	30.3	59.8	71.74 (1위)
전자렌지	17.1	14.2	7.56 (2위)
냉장고	7.1	5.8	7.71 (5위)
건설중장비	4.04	2.5	2.54 (7위)
자동차부품	5.9	5.3	6.20 (5위)
칼라TV	9.8	15.8	20.49 (2위)
세탁기	49.1	47.2	47.18 (1위)
화학제품	19.5	16.9	23.27 (2위)
VCR	10.97	6.1	9.00 (3위)
디지털카메라	1.15	8.12	22.47 (2위)

자료 : WTA

□ 對칠레 15대 수출품목의 한중일 경합동향

○ 對칠레 15대 품목(HS 4단위)중 일본과 경합하는 품목은 자동차(8702~8705), 자동차부품(8708), 건설중장비(8429), 칼라 TV(85281220, 85281210), 타이어(4011, 4012) 휴대폰(85252030), 디지털카메라(85254010) 등 7개 품목

- 이 중 휴대폰은 한국이 19.4%로 일본 0.02%를 크게 앞서고 있으며 컬러TV 역시 한국이 점유율 20.5%로 일본 0.24%보다 우위

- 자동차는 일본이 점유율 20.2%, 한국이 14.1%. 자동차 부품 역시 일본이 8.0%로 한국 6.2%를 앞섬, 건설중장비도 일본이 18.5%로 한국 2.5%를 앞섬. 타이어에서는 일본이 점유율 19.8%, 한국 6.1%로 격차가 큼.

○ 한편, 중국과 경합하는 품목은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철강, 칼라 TV, 타이어, 세탁기 7개 품목

- 이 중 휴대폰은 한국이 시장점유율 19.3%로 3위를 차지하고 중국은 2.9%이며 디지털카메라는 중국이 10.4%로 3위

- 반면, 컬러 TV는 중국이 칠레시장 점유율 1위로 46.8%를 차지하고 한국은 20.5%로 2위. 타이어 역시 중국이 13.1%, 한국이 6.1%

□ 자동차 (HS 8702, 8703, 8704, 8705) : 관세 즉시철폐

- 브라질이 FTA 체결국의 지위를 활용, 칠레 자동차 수입시장의 부동의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05년도 점유율 1위 등극
- 우리나라 역시 '03년 이후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며, 브라질, 일본에 이어 3위 고수
- 미국은 '02년 시장점유율 13%로 3위였으나 '03년 이후 우리나라에 이어 4위로 밀려났으나, '05년 점유율이 늘며 3위 자리를 바짝 추격

<국별 칠레 자동차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증감 (05/0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브라질	286.7	22.98	415.8	23.9	729.5	26.97	75.45
2	일본	323.4	25.9	431.2	24.7	547.4	20.24	26.96
3	한국	148.9	11.9	242.96	13.9	381.0	14.09	56.85
4	미국	125.99	10.1	202.5	11.6	356.1	13.17	75.86
5	아르헨	127.8	10.3	136.4	7.8	198.2	7.33	45.29
6	프랑스	98.5	7.9	87.3	5.01	107.1	3.96	22.74
	총수입	1,247.2	100	1,743.0	100	2,704.7	100	55.18

자료 : WTA

□ 경유 (HS 2710) : 즉시철폐, 일부품목은 5년간 관세인하

- 한국산 경유는 전년대비 152.8%의 수출 증가를 보이며, 시장 점유율도 10%대로 상승
- 對칠레 수출액으로는 경유가 3위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하락세

<국별 칠레 경유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증감 (05/0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미국	54.8	12.7	282.8	36.4	1,025.2	67.79	262.53
2	아르헨티나	230.5	53.5	296.9	38.3	242.3	16.03	-18.37
3	한국	65.3	15.2	61.1	7.8	154.4	10.21	152.87
총수입		167.9	100	434.2	100	1,512.3	100	94.86

자료 : WTA

□ 화학제품 (HS 3901, 3907) : 즉시철폐, 일부품목은 5년간 관세인하

- 합성수지를 주로 하는 화학제품의 對칠레 수출이 크게 늘어 '04년 점유율 3위에서 '05년에는 점유율 2위로 상승

<국별 칠레 경유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증감 (05/0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브라질	69.2	312.01	94.9	29.3	119.9	26.79	26.44
2	한국	43.6	19.5	54.3	16.8	104.2	23.27	92.06
3	미국	32.3	14.5	65.4	20.2	84.5	18.87	29.13
4	아르헨티나	28.7	12.9	49.7	15.4	57.8	12.92	16.31
총수입		223.2	100	323.5	100	447.7	100	38.41

자료 : WTA

□ 휴대폰 (HS 85252030)

- 휴대폰은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에 이어 우리의 對칠레 수출 4위 품목
- '05년도 기준, 칠레 휴대폰 수입시장에서는 브라질이 점유율 1위로 등극한 가운데, 2위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는 3위

-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38.5%의 수출증가율을 보였으나, 브라질의 對칠레 수출이 207%나 증가

○ 전반적으로 칠레 휴대폰 시장에서는 FTA체결국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 '05년 시장점유율 0.02%(16위)로 매우 부진

<국별 칠레 휴대폰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증감률 (05/0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브라질	39.9	15.4	53.1	14.3	163.3	33.98	207.67
2	멕시코	99.5	38.6	108.3	29.2	100.7	20.95	-6.98
3	한국	24.4	9.5	67.2	18.1	93.0	19.36	38.52
4	미국	42.8	16.6	36.9	9.9	27.3	5.69	-25.89
7	말레이시아	7.1	2.7	32.3	8.7	17.2	3.60	-46.44
8	중국	9.2	3.6	10.7	2.9	13.7	2.86	28.39
16	일본	1.5	0.6	1.2	0.3	0.09	0.02	-91.69
총수입		257.7	100	369.8	100	480.7	100	30.02

자료 : WTA

□ 자동차부품 (HS 8708) : 즉시철폐, 일부품목은 5년 유예

○ 우리나라 점유율은 '04년까지 하락했으나, '05년부터 상승추세

○ 일본은 칠레시장에서 '04년 점유율 3위에서 '05년 4위로 하락

<국별 칠레 자동차부품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증감 (05/0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미국	57.3	38.2	66.98	35.96	55.8	26.61	-16.68
2	브라질	19.1	12.7	23.5	12.6	30.5	14.59	30.24
3	아르헨티나	10.4	6.95	13.9	7.5	18.5	8.84	33.43
4	일본	11.5	7.7	15.2	8.2	16.7	7.97	9.83
5	한국	8.8	5.9	9.9	5.3	12.9	6.20	31.14
6	멕시코	3.8	2.6	8.7	4.7	11.4	5.48	32.75
총수입		149.8	100	186.3	100	209.7	100	12.62

자료 : WTA

□ 컬러TV (HS 85281220, 85281210) : 즉시철폐

○ 우리나라는 '04년에 이어 '05년에도 칠레 컬러TV 수입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여 중국에 이어 2위 점유국으로 부상

- '03년까지 칠레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2위를 다투던 멕시코와 브라질은 각각 3위와 4위로 하락

○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부진

- 중국은 '03년 시장점유율이 3위(14.6%)였으나, '04년부터 1위(15.6%)로 급부상하였으며, 특히 '05년에는 전체 수입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룸.

- 반면, 일본은 시장점유율 1% 이하로 지속 하락세

<국별 칠레 컬러TV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증감 (05/0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중국	7.5	14.6	15.6	28.9	23.7	46.83	52.16
2	한국	5.02	9.8	8.5	15.8	10.3	20.49	21.61
3	멕시코	15.8	30.7	15.2	28.2	7.4	14.73	-50.85
4	브라질	14.4	27.9	11.6	21.6	7.1	14.14	-38.35
8	일본	0.2	0.4	0.2	0.3	0.1	0.24	-28.51
	총수입	51.4	100	53.9	100	50.7	100	-5.90

자료 : WTA

□ VCR (HS 85219000) : 즉시 철폐

- VCR은 중국이 칠레시장을 석권 중
- 우리나라는 '04년 對칠레 수출이 전년대비 하락하여 점유율 6.1%(4위)에 머물렀으나, '05년에는 점유율 9%로 3위에 올라섬.

<국별 칠레 VCR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증감 (05/0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중국	14.98	50.1	40.9	67.3	45.5	68.58	11.32
2	인도네시아	2.4	8.1	5.01	8.3	6.36	9.59	26.85
3	한국	3.3	10.97	3.7	6.1	5.9	9.00	60.41
5	말레이시아	4.7	15.6	4.6	7.5	2.1	3.26	-52.71
7	미국	0.9	3.03	0.7	1.2	1.1	1.76	57.86
	총수입	29.9	100	60.8	100	66.3	100	9.21

자료 : WTA

□ 디지털카메라 (HS 85254020) : 즉시 철폐

- 디지털카메라의 칠레 수입시장은 일본이 절반을 점유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이 나머지 시장에서 경쟁 중
- 우리나라는 '04년 대비 '05년의 점유율이 280% 증가하는 두드러진 신장세를 보인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12% 증가하는데 그침.

<국별 칠레 디지털카메라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증감 (05/0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일본	7.3	63.23	11.7	56.84	12.8	45.16	9.20
2	한국	0.1	1.15	1.6	8.12	6.3	22.47	280.53
3	중국	1.7	14.73	2.6	12.73	2.9	10.39	12.12
4	미국	1.0	9.09	1.0	5.12	1.4	5.21	39.93
총수입		11.5	100	28.3	100	28.3	100	37.44

자료 : WTA

□ 타이어 (HS 4011, 4012) : 10년간 점진인하, 5년 유예

- 타이어는 우리나라의 對칠레 주력 수출품목이나, 관세인하가 10년 및 13년 동안 유예되어 있는 품목으로 즉각적인 FTA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품목
- 그러나 현지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6%대의 점유율 유지 중
- 칠레 타이어 수입시장에서 우위를 보여 왔던 일본, 브라질 등의 점유율이 하락추세인 반면, 미국, 중국 등이 신장세

- 미국과 중국은 '04년 대비 '05년 점유율이 각각 69%, 57% 증가하면서 칠레 타이어 시장에서 약진을 거듭

<국별 칠레 타이어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증감 (05/0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일본	37.9	22.5	43.4	21.7	50.0	19.79	15.55
2	브라질	31.3	18.6	36.95	18.5	41.3	16.32	11.79
3	미국	23.2	13.8	24	12	40.6	16.04	69.07
4	중국	11	6.5	21.1	10.6	33.2	13.15	57.44
5	스페인	28.8	17.1	29.8	14.9	31.4	12.44	5.69
6	한국	8.8	5.2	12.6	6.2	15.3	6.06	23.71
총수입		168.6	100	199.5	100	253.1	100	26.87

자료 : WTA

□ 냉장고 (HS 8418) : 양허 제외 품목

- 칠레의 냉장고 시장은 다른 가전제품과 달리 중국, 일본보다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지역무역협정국들이 강세

- 브라질과 이태리가 상위1, 2위를 점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역시 수출증가세를 유지

- 우리나라는 냉장고가 예외품목으로 FTA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조건에서도 '05년 수출이 크게 증가

- '04년 점유율 5.8%에서 '05년에는 7.7%로 급상승

- 중국 역시 아직 점유율은 3% 대에 머물고 있으나, 매년 꾸준히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04년 대비 '05년 점유율 증가폭이 84%에 이르고 있음.

<국별 칠레 냉장고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증감 (05/0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브라질	22.6	36.9	30.5	37.7	36.8	36.39	20.81
2	이태리	9.9	16.2	13.3	16.5	10.7	10.58	-19.55
3	아르헨티나	6.1	9.99	6.9	8.6	9.0	8.93	30.71
4	미국	7.4	12.04	6.6	8.2	8.7	8.61	31.47
5	한국	4.3	7.08	4.7	5.8	7.8	7.71	65.28
7	중국	0.4	0.7	1.8	2.3	3.3	3.35	84.16
총수입		61.3	100	80.9	100	101.2	100	25.19

자료 : WTA

□ 세탁기 (HS 8450) : 양허 제외 품목

- 우리나라산 세탁기는 칠레시장에서 수입시장 점유율 47.2%로 확고부동한 1위 유지 중

- 그러나 '02년 시장점유율 71%에서 '03년 49%, '04년 및 '05년 47.2%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

- 반면, 중국 및 태국이 매년 점유율을 큰 폭으로 늘리며 약진

<국별 칠레 세탁기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증감 (05/0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한국	16.3	49.1	17.3	47.2	21.8	47.18	26.80
2	중국	5.3	15.9	5.4	14.8	8.4	18.18	55.63
3	태국	3.9	11.9	5.8	15.8	7.1	15.40	23.70
4	브라질	4.96	14.99	3.99	10.9	2.9	6.39	-25.91
5	미국	1.4	4.1	1.3	3.5	1.5	3.25	18.35
총수입		33.2	100	36.6	100	46.3	100	26.71

자료 : WTA

□ 전자렌지 (HS 85165010) : 즉시철폐

- 칠레의 전자렌지 수입시장은 중국의 독주 체제
 - '05년 중국산 점유율은 81%로 수입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전자렌지 제품 특성 상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초강세 영향인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 점유율은 지속 하락 중으로, 전자렌지 등 중저가 제품보다는 고급가전으로의 주력 양상이 엿보임.
 - 일본 및 우리나라의 현지 생산기지인 말레이시아, 태국 등 으로부터의 수입도 감소 추세

<국별 칠레 전자렌지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증감 (05/0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중국	5.7	51.3	6.4	55.8	11.4	81.26	77.64
2	한국	1.9	17.1	1.6	14.2	1.06	7.56	-35.02
3	말레이시아	2.1	19.2	2.1	18.4	0.9	6.51	-56.82
4	태국	0.4	3.2	1.1	9.1	0.5	4.02	-46.12
총수입		11.1	100	11.6	100	14.0	100	21.86

자료 : WTA

□ 건설중장비 (HS 8429) : 즉시철폐 , 일부품목은 5년 유예

- 칠레의 건설중장비 시장은 미국이 점유율 41%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브라질과 일본이 2위와 3위를 놓고 경쟁

- 우리나라는 '05년 수출이 전년대비 32%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2.5%를 그대로 유지

<국별 칠레 건설중장비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증감 (05/0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미국	53.1	42.5	147.2	51.9	152.6	40.83	3.67
2	브라질	28.2	22.6	53.3	18.8	74.3	19.88	39.35
3	일본	17.2	13.8	35.1	12.4	69.3	18.54	97.55
7	한국	5.04	4.04	7.2	2.5	9.4	2.54	31.70
총수입		125.	100	283.5	100	373.8	100	31.90

자료 : WTA

□ 철강 (HS 72, 73) : 5년 유예 등

- 칠레의 철강 수입시장은 FTA 체결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1/3을 차지하고 미국과 중국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05년도 수출이 '04년 대비 감소하였고, 점유율 역시 하락
 - 이는 중국이 약진하며, 우리 제품 시장을 잠식하는 것으로 분석

□ 폴리에스테르 (HS 55032000) : 즉시철폐

- 칠레 폴리에스테르 수입시장은 우리나라가 단연 1위
 - 우리나라는 '03년 점유율 30%, '04년 60%에 이어 '05년에는 72%까지 상승

- 2~4위를 이루고 있는 대만, 미국, 중국 등이 모두 점유율 감소현상을 보임으로써 당분간 이 품목에서의 우리나라 아성은 무너지기 어려울 전망

<국별 칠레 폴리에스테르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증감 (05/0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한국	2.2	30.3	5.6	59.8	9.2	71.74	63.96
2	대만	1.6	22	1.0	11.4	1.4	10.88	29.85
3	미국	0.66	9.3	1.0	11.3	0.89	6.91	-16.51
4	중국	0.67	9.4	0.9	9.8	0.87	6.77	-5.34
총수입		7.2	100	9.4	100	12.9	100	36.57

자료 : WTA

Ⅲ. 칠레시장에서 우리기업이 느끼는 변화

1. 자동차

□ FTA 발효 후 판매시장 변화

- 자동차는 한-칠레 FTA 발효에 따른 시장회복 및 확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문으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회복 및 소비자 구매심리 회복으로 한국산 자동차 '제 2 전성기'를 맞고 있음.
- FTA 발효 지연으로 '03년 우리나라의 칠레 자동차시장 점유율이 하락했으나 '04년 발효 이후 가격경쟁력이 크게 회복되어 '05년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감
- 특히 금년 2월 신차 판매 기준 점유율 26.5%로 4년 만에 시장점유율 1위 재탈환 (2위인 일본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26.4%)

<칠레의 주요원산지별 신차 판매현황(2001-2006.2)>

국명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1-2월)	
	점유율	점유율	대수	점유율	대수	점유율	대수	점유율	대수	점유율
총계	100	100	119,501	100	148,573	100	182,347	100	29,920	100
일본	18.3	21.6	28,109	23.5	37,716	25.4	46,140	25.2	7,896	26.39
한국	23.7	20.5	22,510	18.8	31,202	21	42,320	23.2	7,924	26.48
브라질			22,258	18.6	28,672	19.3	29,173	16	4,062	13.58
아르헨티나			18,535	13.5	18,786	12.6	25,262	13.9	3,253	10.87

자료 : 칠레자동차협회(ANAC)

- 현대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상용차, SUV차 등 모든 차종에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소득수준 향상과 자동차 사치세 감소로 SUV 등 고가의 기능성 자동차판매가 크게 늘고 있음.

- Tucson, Terracan 는 Suzuki사의 Grand Nomade, Ford사의 Ecosport를 제치고 SUV 시장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 '05년도 자동차 메이커별 칠레시장 점유율은 GM(시브레) 17.90%, Toyota 11.86%에 이어 현대자동차가 10.45%로 3위 차지

<현대자동차의 연도별 신차판매대수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판매대수	10,810대	12,004대	19,051대
시장점유율(%)	9.04%	8.08%	10.45%

자료 : 칠레자동차협회(ANAC)

□ 칠레시장 내 경쟁여건 변화

- 우리나라 자동차는 한-칠레 FTA발효 지연에 따라 EU, Mercosur, 미국 등 무관세로 수입되는 자동차 대비 가격경쟁력 저하로 급격한 시장점유율 하락을 겪었으나, FTA 발효 이후 경쟁력 회복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은 FTA 미체결국으로 자동차에 대해 6%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5년까지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해 왔으나, 우리나라 제품이 무관세 수입되면서 가격경쟁력 제고

- 그러나 현재 협상 중인 日-칠레 FTA가 발효될 경우 일본차의 경쟁력도 크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중-칠레 FTA발효에 따른 여건

- 중-칠레 FTA가 금년 7월부터 발효되어 중국산 차량의 칠레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현재 칠레진출이 유력시되는 중국산 자동차는 Chery 및 Geely사로 중국 Chery사 경우 이미 칠레 유력업체인 Sigdo Koppers사(전대우자동차 및 쌍용자동차 딜러)를 대리점으로 지정함.
- 현재 중국산 자동차는 칠레가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배기가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예상보다 칠레시장 진출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10월 칠레 모터쇼 참가를 계기로 '07년부터 본격적인 칠레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 중국산 자동차 수출이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칠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 장기적으로는 중국산 자동차가 가격경쟁력(동종의 기존 브랜드 대비 가격이 약 30% 가량 저렴)을 바탕으로 남미시장의 교두보인 칠레시장에의 진출에 올인하고 있어, 향후 우리의 주력 수출차종인 소형차(1,500cc) 및 픽업 등 상용차 부문에서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2. 가전

□ FTA 발효 후 판매시장 변화

○ 캠코더 및 휴대폰 등이 FTA발효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시장회복 가시화

- 기타 제품은 대부분 인근 중남미 생산법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한-칠레 FTA와 무관하게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음.

<주요 품목 판매추이 및 전망>

제품명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전망)
캠코더	수량(천대)	14.0	31.0	34.2	65.0
	금액(백만불)	2.8	5.9	7.1	12.5
	시장점유율	24%(2위)	36%(1위)	40.1%(1위)	45%(1위)
휴대폰	수량(천대)	197.6	543.0	748.6	1,200
	금액(백만불)	20.1	47.4	72.1	12.0
	시장점유율	7.0%	13.4%	15.2%(2위)	18%(1위)

자료 : 삼성전자 칠레법인

○ 가전제품은 타품목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판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FTA를 활용한 홍보에 주력 중

-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FTA발효에 대비하여 '03년 4월 지사조직을 현지법인으로 전환, 2004년 APEC 행사(칠레)의 가전통신부문의 공식 후원업체로 지정되는 등 현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칠레에서의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제고되고 있음.

□ 중-칠레 FTA발효에 따른 여건

- 컬러TV, 비디오카메라, 핸드폰 등 일부 저가위주의 중국산 제품의 무관세 수입 시 한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다소 심화될 수도 있으나, 고도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은 중국제품과의 타겟 소비자층 상이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중-칠레 FTA 발효 시에는 중국 현지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

3. 자동차부품

□ FTA 발효 후 판매시장 변화

-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對칠레 수출 역시 증가하여 점유율 확대 중
 - FTA 발효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5년간 점진적으로 인하될 예정으로 미국 및 Mercosur산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다소 회복
- 한국산 자동차 A/S에 소요되는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한국산이 차지하고 있어 국산 자동차브랜드와 동반하여 인지도 상승

□ 칠레시장 내 경쟁여건 변화

- 한-칠레 FTA발효로 미국,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멕

시코 등 주요 자동차부품 경쟁국들과 동일하게 무관세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한국산 자동차 시장점유율 확대로 향후 A/S용 한국산부품 수요 확대 예상

- 단, 중국 및 대만이 공식적으로는 對칠레 자동차 미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저가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약진 중임에 주목할 필요

☐ 중-칠레 FTA발효에 따른 여건

- 중국산은 한국산 대비 품질이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이 30-50% 가량 저렴

- 중-칠레 FTA 발효 시 중국산 제품 가격쟁쟁력 제고로 일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수출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기술이 미치지 않는 엔진부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영향 없을 것으로 보임.

4. 건설중장비

☐ FTA 발효 후 판매시장 변화

- FTA발효 전인 '03년에는 대한 수입액이 1.7백만불 정도였으나, FTA발효 첫해인 '04년에는 3.6백만불, '05년에는 4.8백만불로 FTA발효 2년 만에 182%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입 규모가 약 8백만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칠레 건설시장 경기 활황으로 전체적인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향후 한국산 건설장비 진출확대를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
- 우리나라 중장비의 브랜드 인지도는 현지 시장에서 매우 높아 마케팅 효과 극대화
- 특히 FTA 발효 이후 한국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품질, 기술력이 인정되어 판매확대 중

□ 칠레시장 내 경쟁여건 변화

- 한-칠레 FTA발효로 한국산 건설장비 대부분 품목이 즉시관세철폐대상품목(일부 품목 경우 5년간 점진적 관세인하)으로서 일본 경쟁업체 대비 가격경쟁력이 크게 제고됨.
- 일본제품은 칠레와 FTA미체결 상황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

□ 중-칠레 FTA발효에 대한 수입업체 의견

- 현재 일부 칠레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들여오고 있으나, 기존 브랜드를 보완하는 제품위주로 거래되고 있음.
- 건설기계 시장은 브랜드 이미지 및 기술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중-칠레 FTA가 발효되더라도 중국산 브랜드 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IV. 시사점

□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은 FTA 발효 이전 '03년에 비해 '05년에는 2배 이상 성장

○ 품목별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 석유화학, 폴리에스테르 등의 수출에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시장개방 예외품목으로 FTA 특혜관세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 가전(세탁기, 냉장고)제품의 점유율도 증가하고 있어 FTA에 따른 국가 인지도 상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 향후 FTA 시장개방 스케줄에 따라 타이어,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 점진적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면 FTA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칠레 시장에서는 FTA 체결국이 강세

○ '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칠레의 수입대상국 중 8위

- 주요 수입국 상위 10개국 중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는 일본뿐임.

○ 중남미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떠오르면서 각국은 경쟁적으로 FTA체결 등 경제협력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특히 칠레 등

중남미 선도시장에 대한 선점 경쟁이 거세어지고 있음.

- 중국이 '06.7월 칠레와 FTA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일본 역시 FTA 협상 중

□ 중-칠레 FTA 발효 대비 필요

- 중-칠레 FTA 발효 시 중국 시장보다는 칠레 시장에서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날 전망
 - 자동차, 전자제품, 컴퓨터 등은 저원가를 앞세운 중국제품이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기업은 중국 내 생산기지에서 칠레로 직접 특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유리
- 중남미의 주요 시장인 칠레에서 경쟁이 더욱 격화됨에 따라 FTA 발효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차별화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노력 필요